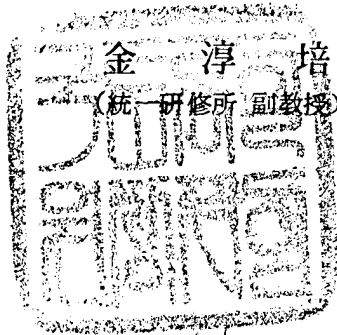


3353

911

北韓의 歷史歪曲



2014.11.11

6/11/11

2014.11.11

院 統 一 土 國
所 研 修 一 統

目 次

1. 序 論	3
2. 北韓의 歷史觀과 解釋事例	5
가. 共產主義的 史觀	5
나. 北韓 歷史觀의 變遷	8
다. 北韓 歷史觀의 特徵	11
라. 北韓의 國史 解釋事例	16
3. 北韓의 近代史 歪曲 및 捏造	23
가. 近代史 記述의 特徵	23
나. 近代史 歪曲事例	25
다. 金日成 行跡 捏造事例	30
4. 結 論	41

1. 序 論

南北의 分斷은 우리 民族이 단순히 둘로 나뉘어 살고 있다는 意味 이외에도 우리 겨레가 함께 脈을 이어온 民族의 참다운 歷史가 계속되느냐 끊기느냐 하는 問題와도 결부되어 있다. 民族統一에서 共通點을 찾는다면 民族史의 正統性이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感에 대한 共同認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民族과 歷史는 統一의 공통분모로서 결국 統一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이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問題는 民族統一이나 民族史의 正統性의 계승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北韓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에서 우리 民族의 歷史를 歪曲하고 허위로 꾸몄다. 그들은 모든 共產主義 國家에서 신봉하는 唯物史觀의 입장에서 우리 歷史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올바른 民族史를 정립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共產國家에서는 지난날 神이나 自然法 등 絶對者의 자리를 唯物史觀으로 대치시켜 共產主義的 歷史信仰을 형성했다. 北韓에서도 代用宗教의 役割은 歷史가 하고 있으며 代用神으로 金日成의 1人 偶像이 들어앉았다.

北韓 땅에서는 近代의 民族史가 완전히 金日成에 의한, 金日成을 위한, 金日成의 歷史가 돼버렸다. 北韓의 歷史 記述은 객관성과 과학성을 전혀 무시하고 다만 주관에 따라 편리한 대로 過

去를 창작한데 불과하다. 北韓에서는 實證史學이니 民族史學과 같은 用語自體가 없다. 그들은 과학적 根據나 뒷받침할 만한 資料도 없이 오직 金日成의 가공적 活動만 가지고 近代史를 꾸밈을 뿐만 아니라 허위에 기반을 둔 革命傳統을 내세워 南北韓間의 正統性 對決에 도전해 오고 있다.

北韓은 歷史의 主體인 우리 民族을 하나의 全體로 보지 않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唯物論者와 觀念論者 등의 兩分法을 써서 둘로 분리시켜 양자간의 鬪爭, 對立, 葛藤을 애써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階級鬪爭史觀과 허위의 혁명전통은 對南赤化의 歷史的 必然性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北韓이 어떻게 國史를 歪曲하고 捏造했나, 그 實相을 알아야 民族의 分斷을 해소하고 民族史的 正統性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北韓에는 허위의 歷史觀에 의한 文化風土가 형성되었고 歪曲된 歷史가 그대로 政治, 軍事, 經濟, 社會 등 모든 영역의 實態에 반영되어 있다. 北韓의 現實이 거짓 歷史에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진정한 內面實態와 內部矛盾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歷史解釋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本論에서는 먼저 北韓 歷史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唯物史觀의 특징을 살펴보고 北韓이 이 唯物史觀을 어떻게 우리 民族史에 적용하였나를 유형별로 事例를 파악해 보겠다. 이어서 19세기

후반기의 近代史를 어떻게 歪曲·捏造하고 20세기 전반기의 最近世史를 어떻게 金日成 한 사람의 行적으로 거짓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北韓의 歪曲된 歷史解釋이 現實에 반영된 측면을 진단하여 우리 民族의 統一問題에 끼칠 影響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北韓의 歷史觀과 解釋事例

가. 共產主義的 史觀

共產主義 歷史觀인 唯物史觀은 공산주의자들이 인류 역사를 解釋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原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의 特徵을 이해함으로써 唯物史觀의 바탕을 가진 北韓이 우리 民族史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唯物史觀 또는 史的 唯物論은 마르크스·엔겔스가 창시한 辨證法的 唯物論을 歷史나 社會의 영역에 適用시킨 인류사회의 發展法則에 관한 하나의 학설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인간 사회의 현상을 自然法則과 같은 절대적 法則에 의해 說明해 보려고 唯物史觀이란 假說을 세워 이를 歷史를 해석하는데 法則처럼 적용했다.

共產主義者들은 唯物史觀이란 「절대적 法則」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經濟나 社會뿐만 아니라 政治, 文化내지는 人間의 意識 등 무형적 분야의 발전까지도 物理學의 原理와 같은 絕對法則에 따른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教條的 性格을 갖고 있는 唯物史觀은 동시에 政治的 性格도 함께 가질 수 밖에 없다.

(1) 教理的 性格

唯物史觀에서는 사회·경제적 生産關係의 발전에 의하여 여러 段階의 社會가 인류 역사에 나타나나 최종적으로 共產社會가 도래한다는 歷史的 必然性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류사회는 社會發展 5 段階說(원시공동체사회 → 고대노예제사회 → 중세봉건사회 → 근대자본주의사회 → 현대공산주의사회)이란 圖式에 의해 共產主義社會로 반드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人間의 歷史가 이런 필연적인 趨勢로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意志에 의해 歷史의 수레바퀴를 다른 方向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2) 政治的 性格

唯物史觀은 애초에 共產主義 政治 이데올로기를 合理化하려는 의도에서 발상되었다. 共產主義者들은 唯物史觀에 입각한 역사해석을 통해 그들 共產政治에 대한 必然性, 當爲性, 優越性を 증명하며 그들 共產獨裁權力 行使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唯物史觀의 입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政治的 性格을 갖는다.

共產國家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目標가 과거의 歷史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基準이 되어 歷史가 現在로부터 過去로 역류되어 재구성된다. 또한 歷史가 黨의 宣傳煽動(Propaganda)의 수단으로 인

식되어 共產黨만이 歷史 해석의 권한을 갖는 黨派性을 강하게 나타낸다. 때문에 共產主義에서의 歷史認識은 역사적 필연성의 인식이며 그것에 대한 服從의 인식이다. 共產國家에서는 唯物史觀的 歷史敎理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죄악시되어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겉으로는 과학적인 歷史學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非科學的인 歷史哲學을 구축한 것이다.

(3) 假定の 絶對化

唯物史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假定을 絶對적인 法則으로 간주한다.

첫째, 物質이 우주의 만물, 모든 存在의 본질이며, 이에 반해서 人間의 의식이나 정신은 다만 物質의 運動法則에 종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歷史發展을 추진하는 본질적 힘은 物質이라는 주장을 한다.

둘째, 經濟가 다른 어떤 領域보다도 歷史 創造의 기본 요소라고 믿는 세계관이다. 歷史와 社會制度의 발전 단계는 人間의 生存手段인 물질적 財貨, 사회적 富를 어떤 양식으로 생산하느냐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歷史의 흐름을 대립되는 階級간의 투쟁 과정으로 보며 歷史發展을 위한 근본적인 社會改革은 폭력과 실력에 의한 鬪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歷史觀이다. 즉 勞動階級은 계급투쟁적 歷史發展의 合法則性에 따라 싸워야 한다는 鬪爭史觀이다.

그리고 歷史의 주체는 인민대중, 즉 勞動者와 農民이라는 전제를 내걸고 사회 발전을 위해, 특히 共產革命을 위해 엄격히 훈련된 職業的 革命家의 지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原理를 전파하고 있다.

나. 北韓 歷史觀의 變遷

北韓에서 1956年 「조선통사(상권)」를 발간하여 國史의 독자적 變用을 시도한 후, 1958년에 나온 「조선민족 해방투쟁사」에서 金日成 중심으로 近代史를 재구성할 때까지는 國史觀의 공백 상태인 國史의 不在時期였다.

北韓에서의 歷史研究를 보면 1945年 해방 후 1950年 6.25 동란까지의 시기는 唯物史觀에 대한 理解도 초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 共產黨의 黨史를 그대로 번역하여 歷史教材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과거 歷史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로 대치시켰다. 이 시기는 교조적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기준으로 우리 民族史를 비판하는 등 民族傳統과 문화적 자기 부정의 단계였다.

다음 1956년부터 1962년까지는 國史觀의 형성기로 기간중의 歷史意識은 사회발전 5단계론을 원용한 經濟 決定論이 주류를 이뤘다. 이 때에 三國統一을 「朝鮮 準民族」의 형성으로 描寫하는 등 민족적 특수성이 삽입되었다. 다른 편으로 近代史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開港 이후를 중점적으로 研究하고 敎習하였다. 이 시기에는 學說 論爭도 전개되었는데 중요 쟁점은 國史上 奴隸制度의 有無問題와 사회발전 5 단계설에 따른 國史의 時代區分 문제였다.

1960年代 중반기에 이르러 北韓의 基本史觀이 고정되었는데, 近代 歷史의 주체가 黨 주체에서 金日成 1人 주체로 완전히 전환되어 金日成과 近代史를 同一 人格視하며 조작된 歷史 위에 革命 傳統이란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北韓에서 各異한 史觀에 따라 자유롭게 歷史 研究를 진행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唯物史觀의 적용에 있어서도 오직 黨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을 字句 하나 틀리지 않게 千篇一律的으로 반복해서 쓰고 전파시켜야 한다. 北韓에서는 國史를 집체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金日成시대 이전의 역사와 金日成 출생 이후의 歷史를 구분하여 별도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日成 이전의 歷史는 주로 사회과학원 산하의 歷史研究所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勞動黨 中央委員會 산하의 黨歷史研究所는 주로 金日成 個人 行跡을 날조, 미화하는 任務를 맡고 있다.

해방이후 北韓에서 「로동당 출판사」나 「사회과학 출판사」등의 명의로 발간된 歷史冊 가운데 우리가 활용 가능한 資料는 다음과 같다.

國史分野 發刊物

책 명	발행년도	저 자 (발행처)	비 고
조선력사	1955	김석형(학우서방)	북한 교육성 비준
조선사개요	1957	김석형, 양형섭 등 (국립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교 강좌용
조선통사	1956	김석형, 이나영 등 8명 (과학원 력사연구소)	상, 하 2권
조선력사	1964	(학우서방)	고급학교 2년용
력사사전	1971	(사회 과학출판사)	상, 하권
조선통사	197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3국시대를 고구려 중심으로 서술
조선전사	1979~ 82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김일성시대를 미화

※ 고고학, 고구려사 등 歷史의 특수한 분야를 취급한 자료는 제외.

近代史 關係 發刊物

책 명	발행년도	저 자(발행처)	비 고
우리의 태양	1946	조선예술총동맹	○ 근대사 날조의 첫시도
영웅 김일성장군	1946	韓 雪 野	○ 김일성 위상화 작품 ○ 한설야는 1962년 숙청

책명	발행년도	저자(발행처)	비고
조선민족해방투쟁사	1949	白南雲, 崔昌益	○ 김일성대학교 과외특강 내용 ○ 최창익은 1958년 숙청
김일성장군략전	1952	로동신문특집 (4. 10)	○ 김일성 생일관계특집
조선민족해방투쟁사	1958	李 羅 英	○ 49년도 책자를 근본적으로 개작한 날조문건
조선근대혁명운동사	1961	(과학원 역사연구소)	○ 58년도 이나영의 날조를 공식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1968	白 峯	○ 최초의 김일성가계 우상화 문건 ○ 상, 중, 하 3권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로동당 역사연구소)	○ 수기형식의 가공적 내용 수록 ○ 수차 개작 및 보완

다. 北韓 歷史觀의 特徵

北韓은 唯物史觀을 교조적으로 원용하여 5천년의 우리 歷史를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한 맥락에서 共產主義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전락시키고 더우기 5천년의 民族史보다도 金日成 한 개인의 가공적 行跡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民族史가 계급투쟁의 과정이었으므로 金日成에 의한 革命은 필연적이었다는 점을 억지로 입증하고자 唯物史觀의 제

반 敎理와 假定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역사 사실들을 歪曲했다. 唯物史觀에 충실하게 우리 國史의 時代區分도 임의로 5단계로 도식화해 버렸다.

北韓은 1979년부터 3년간 唯物史觀에 입각해서 우리의 歷史를 그들 나름대로 재편성하여 「조선전사」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 총 33권으로 발간한 朝鮮全史는 北韓이 정치적 입장에서 우리 國史를 왜곡·변질시킨 결정판이다.

「조선전사」의 개략적 構成內容은 다음 표와 같다.

「조선전사」의 構成體系

구 분	발 간 도	책 번호	권 수	시 기	사회성격	비 고
原始篇	'79	1	1	50 만년전~ B.C.10세기	공동체 사회	「조선사람」의 인류학적 단일성 강조
古代篇	'79	2	1	고조선, 부 여, 진국	노예제 사회	사적소유발생, 계급출 현, 국가형성
中世篇	'79 및 '80	3~12	10	3국시대~ 이조말	봉 전 사 회	조선민족 형성
近代篇	'80	13~15	3	개항후~ 1920년대말	자 본 주 의 사 회	반제·반봉건 인민민 주주의 혁명단계
現代篇	'81 및 '82	16~33	18	1930년이후	공 산 주 의 사 회	사회주의제도수립 단 계

「조선전사」는 그 序文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유구한 우리 民族史를 共產主義 政治 이데올로기에 의해 階級鬪爭史로 왜곡하고 近代史를 金日成 중심으로 捏造했다는 두 가지의 特性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그 序文에서는 “김일성 수령의 혁명 활동의 개시로부터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온 현 시대, 주체시대의 역사를 체계화했다”고 쓰고 金日成이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화하는 데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즉 과학 리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우리 역사의 앞길을 밝히었다”고 강조했다.

「조선전사」에서 唯物史觀의 제반 敎理와 假定들을 그대로 도입하여 우리 國史를 교조적으로 기술하는 데에서 나타난 몇 가지 特徵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唯物論의 관점에서 우리 民族은 原始時代로부터 발생한 唯物思想을 현재까지 연면히 이어오며 발전시켰다는 점을 애써서 찾아 이를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民族史를 暴力鬪爭과 戰爭 중심의 歷史로 묘사하여 5천년이 階級鬪爭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歷史發展의 주체는 오로지 農民과 勞動者였던 것처럼 기술하면서 상류층이나 양반계급의 業績은 완전히 무시하는 등 지배층 중심의 王朝史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被支配層인 民衆위주의 역사를 기술

한다는 구실하에 불확실한 사실들로 歷史를 서술하고 있다.

민족 문화 유산도 農民과 勞動者들의 人民性和 愛國主義가 발현된 것이라 주장하며 社會主義的 內容의 발굴에 주력하기 때문에 上流層과 知識層의 文物, 制度, 事件, 人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北韓은 歷史 解釋의 보편적인 경향에 따라 大衆의 實生活을 중심으로 歷史를 記述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農民들의 투쟁, 폭동, 혁명을 역사 발전의 原動力으로 강조하는 歷史 記述의 입장은 그들의 暴力革命論을 합리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투쟁 意識을 고취시키려는 데에 그 정치적 目的이 있다 하겠다.

세제, 우리의 古代史를 古朝鮮과 高句麗 중심으로 서술하고 對外 抗爭을 강조하고 있는데, 近代史에서는 美國과 日本에 대한 抗爭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近代의 歐洲와 日本帝國主義 侵略에 대한 민족투쟁을 社會主義 勞動運動으로 도색하고 있다.

北韓이 對外 抗爭을 극력 강조하는 歷史 記術의 목적은 民族 主體性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이른바 「革命傳統」과 우리 歷史를 接木시키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또 民族 鬪爭을 社會主義 運動으로 묘사하는 것은 共產黨의 탄생과 그 활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論理를 도출키 위한 것이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北韓은 다른 어느 共產國家 못지 않게 정치적 입장에서 우리 國史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 政治的 目標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民族史를 金日成 偶像화 수단으로 삼기 위함인데, 近代史는 완전히 金日成의 황당무계한 개인 行跡만 수록한 가공의 個人 傳記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大韓民國의 民族史의 正統性에 도전키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民族을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보지 않고 착취자와 피착취자 혹은 唯物論者와 觀念論者 등으로 양분시켜 兩者간의 대립, 갈등만을 부각시키면서 民族史를 왜곡·변질시켰다. 우리 民族史는 소위 反動에 대한 「人民의 鬪爭」에 의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반동적 資本主義 경제체제와 自由 民主主義 정치체제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北韓은 우리 歷史를 古朝鮮, 高句麗, 渤海, 高麗 중심으로 서술하고 新羅의 三國統一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民族文化의 중심지인 서울을 부정적으로 描寫하며 平壤을 미화하여 平壤의 正統性을 내세우고자 한다.

眞實을 歪曲하고 허위의 歷史를 記述하려니까 그들이 발간한 歷史 書籍은 그 內容뿐만 아니라 文章의 형식도 통속 소설과 같이 과도한 형용사와 수식어를 사용하여 천박한 感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라. 北韓의 國史 解釋事例

(1) 唯物思想

北韓은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근본사상으로 唯物史想이 그 주류를 이뤘으며 이런 思想에 대해 주관적 觀念論과 객관적 觀念論이 대립되어 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民族精神의 바탕을 이뤘던 도덕 윤리와 종교들을 觀念的인 反動思想으로 일축하고 있다. 佛敎, 儒敎, 道敎 등이 우리 先祖들의 정신을 지배했고 또 民族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점은 하나도 인정치 않고 支配層의 統治制度를 공고히 하고 擄取階級의 利益을 위해 만들어져서 우리 民族에게 나쁜 害毒만 끼쳤다고 片面일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北韓이 우리 民族思想을 唯物思想으로 간주하고 있는 內容을 각 시대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時代別 唯物思想

時 代	唯 物 思 想	反 動 思 想
原始時代	○ 物質에 대한 思想이 싹터 物質을 중심으로 思考	
古 朝 鮮	○ 소박한 유물론철학인 陰陽 五行思想 出現	祭天思想이 나와 人民들의 계급의식 마비

時 代	唯 物 思 想	反 動 思 想
三國時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句麗의 음양오행사상은 농민이익의 대변 ○ 新羅의 지배적 사상인 風流思想은 유물적 요소와 애국주의 정신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佛敎는 착취계급에 대한 人民의 鬪爭을 <악>이고 착취당하는 고통을 참는 것을 <선>이라고 설교 ○ 律宗의 世俗五戒는 원수도 죽이지 말라는 비 자주적 사상
高 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奎報는 氣一元論, 吉再는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 후기에는 無神論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性理學은 봉건지배와 복종 관계를 절대화
李 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鄭道傳은 유물론적 辨證法을 주장하고 金時習과 徐敬德은 유물론적 主氣說을 主張 ○ 李栗谷의 객관적 관념론은 유물적 實學의 형성 배경 ○ 實學者들은 변증법적 요소가 내포된 유물론적 思想과 無神論的 立場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封建的 支配關係를 유지키 위해 性理學의 주관적 觀念論이 發展했는데 李退溪는 그 대표적 인물

北韓은 공동사회인 原始時代에는 反動思想이 없었으나 國家와 階級의 출현과 함께 反動思想이 생긴 것처럼 말하면서 高句麗의 반동사상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으나 新羅와 百濟의 反動思想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 歷史上 唯物思想은 古代에 소박한 物質 중심의 思想이 대두된 후, 이것이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와서 唯物論的 哲

學으로 체계화되었고 朝鮮朝에는 다시 唯物論的 辨證法으로 더욱 발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古代로부터 소위 唯物思想을 가진 歷史的 人物들이 계급적 혹은 시대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면에서 革命思想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당시 壓迫者들을 반대하는 農民들의 鬪爭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實學思想을 가진 人物들은 그들의 계급적 制限性에서 벗어나지 못해 社會革命思想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조선로동당」은 그 思想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시에 계급적 制限性도 벗어났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先祖들이 이처럼 철저한 唯物思想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 先祖들은 사람의 魂魄을 인정하여 죽은 조상들에게 祭祀를 지냈다. 또 古代로부터 각종의 神맞이 굿을 하여 이에서 많은 民俗놀이로 전래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 先祖들은 草木蟲魚, 地水火風 등 세상의 모든 存在物은 魂이나 精靈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物活思想(Animism)도 갖고 있었는데 北韓의 歷史記述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傳統을 아예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2) 階 級 性

北韓이 우리 先祖의 사상을 唯物思想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도 階級的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民族

歷史의 발전 주체가 農民, 勞動者라고 하여 철저하게 階級性에 입각해서 被支配層 위주로 國史를 기술하였다. 즉 우리 歷史를 說明함에 있어서 우리 單一民族을 支配層과 被支配層, 혹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의 鬭爭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北韓의 歷史冊에는 “원시공동체 사회는 富와 貧이 없는 無階級社會였으나 종족간의 전쟁으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階級分裂이 있었다. 이때부터 포로와 가난한 자를 奴隸로 부리는 노예 소유자와 노예의 兩階級으로 분리되었다”고 쓰고 있으며, 또는 “세 나라 시기에 新羅의 統一은 外敵을 반대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階級鬭爭이기도 하였던 통일전쟁 行程이었다. 이 전쟁에서 많은 노비들이 해방되었다”고 기술했다. 혹은 “고려시대의 금속화폐 제조는 封建搾取階級이 농민들의 생산품을 헐 값에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世宗大王의 한글 창제의 근본 목적은 인민들을 착취키 위한 데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李朝時代의 사회는 양반, 지주, 상인, 자본가의 착취만이 횡행하였던 사회였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朝鮮朝 後期의 사회 실상을 영국의 産業革命 당시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기술하였다.

北韓은 우리의 옛 歷史에서도 고대 로마帝國時代에 있었던 事件 혹은 近代 구라파의 産業革命 과정에서 나타난 事實과 같은 것이 그대로 있었던듯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階級史觀에 의해

서 支配層과 被支配層 등의 2원적 역사 요소에서 하나의 要素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歷史歪曲의 과오를 불가피하게 범하고 있다.

(3) 暴力鬭爭의 歷史

「조선전사」의 序文에 金日成의 敎示를 인용하여 “인류의 歷史는 아직 어떤 통치계급이 자기의 支配權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알지 못하며 어떤 반동계급이 反革命的 暴力을 쓰지 않고 공손히 政權에서 물러선 실례를 알지 못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5권) 金日成 首領이 정식화한 이 古典的 命題는 革命 鬭爭에서 暴力 사용의 불가피성의 보편적 진리를 밝혀 주었다”고 쓴 것과 같이 暴力鬭爭을 신봉하는 그들의 본질적 입장을 잘 알 수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역사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작은 층들 사건마저도 그것을 戰爭, 暴動, 鬭爭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9세기 신라에서 농민폭동”이 있었는데 “9세기의 농민들은 封建制度의 불합리성을 인식 못하고 封建制度를 반대하는 구호를 제기치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高麗時代의 妙淸의 亂, 鄭知常의 亂, 萬積의 亂을 미화 찬양하여 자세히 쓰고 李朝時代에 발생한 李施愛의 亂을 함경도 농민전쟁으로, 洪景來의 亂을 평안도 농민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황하게 묘사했다.

더구나 15세기와 16세기에 流民武裝團의 투쟁들이 광범히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써 洪吉童의 鬭爭(1948年), 林巨正의

鬭爭(1559年)등을 꼽고 있다.

이처럼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國史를 서술하는 데에서 그들 體制가 暴力을 신봉하며 體制 자체가 폭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民族은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戰爭, 鬭爭, 暴動만을 일삼아 온 民族이 결코 아니란 事實은 不問可知이다. 그런데도 北韓이 우리 國史를 暴力的 階級鬭爭의 과정으로 묘사하는 것은 民族史로부터 對南暴力 革命의 정당성의 論據를 찾기 위함인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분명히 하고 있는 바이다.

(4) 時代別 歷史 記述

北韓에서는 일찌기 有史以前부터 우리 先祖들이 韓半島에서 國家를 형성하여 살아 왔다고 주장한다. 우리 민족은 B.C. 10세기 경에 韓半島와 滿洲一帶에 古朝鮮, 扶餘, 辰國을 세웠는데, 이들 3國은 奴隸 所有制度에 바탕을 둔 中央集權的 國家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가 노예 소유제 사회였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犯禁 8條와 殉葬의 예를 들고 있다. 그들은 檀君神話 등 모든 建國說話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는 統治者들이 자기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이야기들이라고 해석한다.

北韓은 현재 古朝鮮과 高句麗의 歷史와 함께 平壤에 관한 歷史도 美化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新羅의 三國統一이 부정

되고 있다. 당시는 統一된 時代가 아니라 南쪽에는 統一新羅가 있었고 北쪽에는 渤海가 있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南北 分斷의 時代로 서술하고 있다. 新羅의 聯唐政策을 비난하는 실례로서 “6세기에 백제와 신라의 統治階級들은 領土의 확장을 위하여 中國大陸의 勢力을 끌어들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高句麗 통치계급들은 자기들의 주견에 따라 행동하였고 비굴하게 外國의 侵略 勢力까지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이와 비슷한 서술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北韓 共產集團은 高麗의 對外抗爭을 찬양하며 開城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高麗의 傳統도 이어 받았다는 점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대해서는 李氏朝鮮의 四色黨派와 부패, 분열주의자들이 모인 소굴이었던 것처럼 描寫하고 있다. 나아가 朝鮮朝에는 계급적 모순이 계속 축적되어 왔고 17세기 후반기부터 일지기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등 資本主義 要素가 싹터서 鑛工業의 임금 노동자와 失業者들이 발생했었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經濟라는 下部構造가 변화된 결과 實學思想도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다음 1860年代 開港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社會主義的 요소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도 거짓 사례를 들고 억지 논리를 전개하여 강조하고 있다.

3. 北韓의近代史歪曲 및捏造

가. 近代史記述의特徵

北韓에서는 특히 近代史 이후의 歷史를 증시하고 그 敎習이 각종 敎育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金日成이 國史를 體系化하는데 지침을 주어 발간했다는 「조선 전사」 33권 가운데 3분의2가 되는 21권이 1860年代 이후의 近代 혹은 現代史인데, 특히 18권은 金日成만 취급한 現代史이다. 그리고 民族解放鬪爭이나 近代革命運動 등의 표제를 붙인 近代史에 관한 문헌이 歷史冊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近代史 이외에 특정한 時代나 分野를 독립시켜 발간한 단행본은 高句麗史, 古考學, 實學 관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北韓은 1960年代까지만 해도 近代史의 時代區分을 1860年代부터 1945年 解放될 때까지로 보았으나 現在는 1860年代부터 1920年代末까지로 보고 그 이후는 現代史로 取扱하고 있다. 이런 時代區分은 金日成의 가공적 行적으로 近代史를 채우다 보니까 나온 결과이다. 北韓에서 近代史는 기본적으로 金日成을 주인공으로 하여 서술하고 부수적으로 共產主義 運動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近代史가 진정한 우리 民族史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이탈하여 金日成과 그 家系를 偶像화시키기 위한 手段으로 전략했다. 북한은 여기서부터 金日成의 소위 「抗日革命 傳統」이란

것을 造作해 냈다. 특히 古朝鮮 이후의 歷史를 階級鬭爭史로 왜곡하고 이것을 金日成의 날조된 「抗日革命傳統」과 연결시켜 독재정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北韓은 日帝時에 전개된 民族主義에 입각한 獨立運動은 초기에는 그나마 비판적으로 다루었으나 1960年代 이후에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北韓에서 발간한 近代史 책자에는 엄연히 存在했던 歷史的 事實과 事件들은 도외시하고 대신 상상력을 동원하여 허무맹랑한 事件들을 조작한 虛構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北韓이 쓴 近代史에 나타난 金日成의 행적은 다른 人物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活動이나 業績을 모두 도용하여 조작한 것이거나 歷史的 事實을 정반대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꾸몄다. 金日成의 行蹟에 관한 敘述은 根據資料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通例이며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애초에 날조된 資料를 내세웠거나 자신의 교시란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왜곡이나 조작은 金日成 한 個人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全家系와 側近者에게 까지 확대하고 있다.

北韓은 日帝의 韓國 강점이전의 期間은 金日成 出現의 必然性, 共產黨 조직의 불가피성이 축적되어 온 기간이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우리 近代 歷史의 모든 愛國運動이 反封建鬭爭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이같은 努力들이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실패의 原因은 혁명적 鬭爭 綱領이 없었고, 革命의 參謀部인

革命的 黨이 없었고, 革命階級の 領導者인 革命的 首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片面 一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近代史 歪曲事例

金日成과 직접 관련되는 事件이나 內容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近代史의 대표적인 事件을 몇 가지 골라서 北韓이 어떻게 記述하고 있는가를 提示함으로써 北韓이 우리 近代史를 解釋하고 敍述하는 特徵을 파악해 보겠다. 近代史의 주요 事件을 記述한 內容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3. 1 運動(1919. 3. 1) : 3. 1 人民蜂起

區分	1970年代 記述內容	1980年代 記述內容
經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宗教界出身 33人이 朝鮮民族의 代表로 自處하면서 ... 獨立宣言書를 發表하고 平和的 示威準備 ○ 3月5日에 學生들과 서울市 民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暴動에 蜂起 ○ 革命的 政黨이 없는 條件下에서 全人民的 反日蜂起가 暴動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蜂起는 平壤에서 大衆的인 獨立萬歲示威 鬪爭을 첫 烽火로 하여 먼저 타 올랐음 ○ 平壤에서 미리 짜놓은 計劃에 따라 3月1日 12時 종소리를 신호로 장대제에 있던 崇德女學校에 모여들어 1시에 獨立宣言文 朗讀

區 分	1970年代 記述內容	1980年代 記述內容
		○ 民族主義者들은 獨立宣言式을 탑골公園에서 할 것을 파기
原因	○ 러시아 10月革命이 反日 大衆의 鬪爭에로 고무 ○ 金亨稷이 뿌린 反日愛國 思想과 革命的 불씨는 3.1民衆蜂起로 各地에 타 번짐.	○ 金亨稷이 革命的 씨앗을 뿌리고 反日獨立運動 據點으로 만든 平壤崇實學校에 의해 主動
結果	○ 朝鮮人民은 피의 敎訓을 얻음 ○ 人民들은 祖國의 自由와 獨立은 請願이나 平和的 示威方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革命的 鬪爭의 方法으로서만 爭取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	○ 3.1蜂起를 契機로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時期는 終結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旗幟 밑에 勞動階級을 先頭로 한 朝鮮人民의 民族解放鬪爭은 새 段階로 突入
失敗原因	○ 指導部에 부르조아民族主義者가 없게 되었음 ○ 國際革命力량의 積極的 支援을 얻을 수 없었음	○ 이 運動을 領導할 革命的 指導者, 革命的 黨이 없는데 있었음 ○ 부르조아民族主義者들의 無抵抗主義와 政治的 投機行爲 때문이었음

東學革命(1894. 2) : 1894年(甲午)農民戰爭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 農民軍을 編成하여 全國的 範圍에서 農民戰爭으로 擴大되었으며, 公文書를 燒却하고 무고한 罪人을 釋放
原 因	○ 南韓에서 土地를 中心으로 階級的 矛盾對立의 深化
失 敗 原 因	○ 새로운 革命的 階級的 確固한 領導가 없었고, 革命的 綱領이 없었으며 革命的 鬪爭方法을 몰랐으며 農民軍 指揮部 内部에서의 意見 不一致 때문이었음
評 價	○ 비록 많은 部門에서 東學이라는 宗教的 外皮를 쓰고 있었으나 朝鮮 人民의 崇高한 愛國主義와 革命 傳統을 높이 示威한 빛나는 革命運動이었음

甲申政變(1884. 10.) : 1884年(甲申)부르조아革命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 開化派는 守舊派에 대한 쿠데타 斷行 ○ 日本은 開化派를 利用하여 自己勢力을 부식하려고 努力
結 果	○ 朝鮮 人民들로 하여금 自主的인 民族精神과 近代的인 新文化 啓蒙運動을 擡頭하게 한 先驅的 役割

區 分	記 述 內 容
失 敗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革命力量이 微弱했고 開化派가 人民大衆의 革命力量에 依據하러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겁냈으며, 日本 侵略者들에 대해 잘못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임

壬午軍亂(1882. 6.) : 1882年의 軍人暴動(壬午軍變)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人들이 武器庫를 占領하고 악질군관을 處斷 ○ 捕盜廳, 義禁府 등을 襲擊하여 무고한 罪囚釋放 ○ 倉庫를 헤쳐 軍人들과 貧民들에게 쌀을 나누어 줌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別騎軍에 대한 特別待遇 ○ 13個月 밀린 俸米中 모래, 겨가 切半인 1個月分 俸米支給
結 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院君의 再執政, 暴動軍인과 貧民들을 苛酷하게 討伐 ○ 民族的 階級的 覺醒을 一層 提高 ○ 清·日 兩國勢力의 朝鮮侵略 強化
特 記 事 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封建統治階級の 代表이며 大土地 所有者였던 大院君이 軍人들과 都市 貧民들의 絶실한 要求를 解決하여 줄리는 만무

區 分	記 述 內 容
	<p>○ 그는 自己中心의 封建統治機構를 再編成하기 위해 급급, 暴動軍人들에 대해서는 適當한 時期에 가서 嚴酷한 處斷을 내릴 것을 計劃함</p>

6. 10 萬歲運動(1926. 6) : 6. 10 萬歲 示威鬭爭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p>○ 純宗의 상여가 卍조교에 이르자 群衆속으로부터 勞動者, 青年學生들의 先唱으로 朝鮮獨立萬歲의 우렁찬 합성이 퍼져 나옴</p> <p>○ 各界各層의 朝鮮 人民들은 日帝에 대한 격분을 참을 수 없어 罷業, 撤市, 休業, 同盟休學을 일으키고 植民地 統治者들을 襲擊,</p>
原 因	<p>○ 共產黨 創建에 의한 反日大衆運動의 成長, 朝鮮共產黨 指揮下의 示威鬭爭</p>
失 敗 原因	<p>○ 朝鮮共產黨의 宗派分子들의 派爭으로 인하여 組織的 基盤을 構築하지 못했으므로 失敗.</p>
特 記 事項	<p>○ “共產黨의 創建은 勞動運動과 農民運動, 民族解放運動의 發展을 추동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의 指導 밑에 …… 日帝와 地主, 資本家들을 反對하는 勞動者, 農民들의 大衆的 鬭爭은 더욱 擴大되었다” (金日成選集, 4卷, p282)를 그대로 引用</p>

北韓은 歷史的 事件을 기술하는데 반드시 金日成의 敎示를 인용하고 나서 革命性과 階級性을 따져 行爲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있다. 近代史의 서술은 특히 객관성을 찾을 수 없는데 장황한 수식어, 敬語와 卑語, 육지거리를 섞어서 주관적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들은 近代의 反封建鬪爭이나 階級鬪爭이 革命을 지도할 수 있는 領導者와 指導勢力이 없어서 성공못한 점을 극히 아쉬워 하며 金日成의 出現이 고대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다. 金日成 行跡 捏造事例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金日成이 우리 民族의 5천년 歷史에 최초로 떠오른 위대한 太陽으로서 그 이전의 歷史는 암흑의 歷史였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심지어 金日成 선조들의 行跡까지 조작하여 革命傳統이란 것을 날조할 뿐만 아니라 그를 半神半人的 存在로 만들어 超自然的 활동을 꾸며냈다.

北韓은 金日成의 家系를 革命的 家庭으로 날조기 위해 그의 曾祖父인 金膺禹의 行跡부터 조작했다. 金膺禹는 당시에 大同江 근처에 살았던 노인이란 이유 밖에 없는데 우리 近代史의 主要事件인 「제네랄 서먼」號 事件(1866. 7)과 결부시켜 위대성을 나타내려는 허무 맹랑한 날조를 서슴지 않고 있다. 北韓에서 나온 資料를 보더라도 金膺禹는 당시에 地主 李平澤이라는 사람의 先山에서 묘지기 노릇을 했던 人物인데도 그를 「서먼」號를 격침시킨 主人公으로 둔갑시켜 歷史를 조작하고 있다. 이 捏造

事實은 1968年 3卷으로 발간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이라는 책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 이전의 資料에는 平壤 부근의 住民들이 朴春權의 지휘하에 평양 감영의 軍人들과 합세해서 「서면」호에 대해 결정적 攻撃을 가하였다고만 記錄하고 있지 金膺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원래 「제네랄 서면」號는 1866年 大同江에 들어와 通商을 요구하며 무고한 住民을 殺傷하고 官軍을 납치하는 비행을 저질렀는데, 事態가 악화되자 당시 平安監司 朴珪壽는 「서면」號를 불태워 버리기로 결심하고 火船에 의한 「서면」號 연소작전을 전개하여 沈沒시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北韓에서는 金膺禹가 「서면」號와의 鬪爭을 위해 萬景臺와 주변 住民을 동원하여 指揮했으며 “歷史上 처음으로 불배를 띄워 보내는 火攻戰術을 쓰는 창발적인 戰法을 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漢藥材 密賣商을 하던 金日成의 父인 金亨稷도 抗日運動을 벌여온 위대한 指導者로 조작하였다. 北韓에서 金亨稷의 經歷을 조작해 온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金享稷 經歷造作過程

年 代	內 容	出 處	備 考
40年代	○ 전혀 言及 없음		
50年代	○ 故鄉에서 3.1運動 參加 ○ 1919年 平壤監獄 投獄, 28年 36歲로 死亡	김일성장군략전(1952)	첫 造作
60年代	○ 3.1運動때 중강진 등 韓滿 國境서 獨立運動 指導 ○ 1916年 平壤監獄 投獄, 26年 32歲로 死亡	조선근대혁명운동사(1961)	1952年 造作을 再捏造
70年代	○ 1917年 朝鮮國民會 組織 ○ 共產主義運動의 先驅者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1968)및 력사사건(1971)	民族的 成分 排除
80年代	○ 1917年 朝鮮國民會 組織 ○ 社會主義 思想을 제일 먼저 導入 ○ 3.1運動의 주동자	조선전사(1980)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金亨稷에 의해 1917年 조직되었다는 소위 朝鮮國民會란 어느 歷史資料나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日帝時代에 國民會와 비슷한 이름의 소규모 愛國團體는 많이 있었지만 金亨稷의 이름과 관련된 團體는 하나도 없었다.

金日成의 家系를 偶像化한 결과, 그의 曾祖父인 金膺禹는 「서먼」號 격침의 主役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反美主義者, 祖父 金甫鉉은 독립애국지사, 父 金亨稷은 3.1運動의 주인공이며 共產主義 運動의 선구자, 母 康盤石은 反日 女性指導者 혹은 「조선의 어머니」로 묘사하기에 이르렀고 동생 金喆柱도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만들었다.

金日成은 그 先代들이 우리나라의 獨立運動을 지도하고 共產主義 運動을 벌여 온 傳統을 이어받아 共產革命을 완성하여 革命傳統이란 것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現在는 이 革命傳統을 代를 이어 계승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金正日이 공산 독재정권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前妻 金正淑(金正日 生母)도 항일 빨치산을 지도한 영웅이라고 날조하고 金正日도 소년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나타내는 등 指導者의 품성을 지녔으며 6.25 動亂時에는 美國을 반대 투쟁하는 少年團을 조직했다고 그의 過去 行蹟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北韓의 자료들에는 현 독재자 金日成이 平南 大同郡 용산면 하

리 칠골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된 것도 있으나 現在는 大同郡 古坪面 南里에서 태어났다고 공식화시키고 있다. 그의 本名은 金聖柱라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아명은 「중손」이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 父 金亨稷을 따라 滿洲 東北部로 갔다가 곧 고향으로 돌아와 의가에서 私立學校인 彰德學校를 다녔다. 고향에서 私立 小學校를 잠시 다니다 재차 滿洲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小學校를 졸업했다. 그 후 華成義塾에 다닌바가 있고 吉林의 毓文中學에 다닌 일도 있다는 설도 있다.

金日成은 14세때 父 金亨稷이 죽은 후, 滿洲에서 韓國人 및 中國人 匪賊集團의 심부름꾼으로 있었다. 1929年 17세가 되던 해에는 左翼 서클의 모임에 出入하다가 그 회원들이 잡히는 바람에 吉林으로 도망가 高秀수라는 곳에서 李鍾洛이란 사람 밑에서 사동으로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30年부터 撫松 일대의 中國人 匪賊團에 가담하여 활동했으며 1931年 10月에는 中國 共產黨에 入黨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33年 이후에는 行방불명이 되었는데 일부 主張에 따르면 中國 共產黨 소속의 東北 抗日聯軍이란 이름의 마적단의 말단 隊員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金日成의 친동생 金英柱의 日警에 의한 체포로 확인)

1941年初에 中國 共產黨의 武裝隊員들이 日本 關東軍의 소탕전

에 못이겨 소련 땅으로 도망갈 때 金日成도 소련의 연해주로 가서 소련軍 情報要員으로 훈련받다가 1945年 해방된 후, 소련군의 初級將校 계급장을 달고 소련 군용차에 실려 入北되었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歷史冊이 새로 나올 때마다 金日成에 관한 기록이 달라진다. 解放 직후의 초기 資料에는 간간히 사실대로 記述된 부분이 있었으나, 1970年 이후에는 완전히 造作에 의해 虛構的 活動과 거짓 事件들로 金日成에 관한 기록을 쓰고 있다. 金日成의 行蹟에 관한 捏造過程의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의 少年時節

時期 區分	1950年代	1960年代	1970年代
滿洲移住 時期	○ 1926年 中國東 北部로 移住 (滿 14歲)	○ 1919年 장백현 팔도구로 移住 (滿 7歲)	○ 1919年 장백현 팔도구로 移住 (滿 7歲)
萬景臺 歸還時期		○ 1923年 1月 13日 팔도구에서 歸還	○ 1923年 3月 16日 팔도구에서 萬景 臺로 出發 * 25年 2月 再次 팔도구로 出發
中學校 學業	○ 1926年 吉林 毓文中學 入學	○ 1926年 華成義 熟 入學 및 中退	○ 1926年 華成義 熟 中退

時期 區分	1950年代	1960年代	1970年代
吉林移住	○ 1927年初 어머니 康盤石을 찾아 吉林으로 出發.	○ 1927年初 어머니 康盤石을 찾아 吉林으로 出發	○ 1927年 吉林으로 革命活動舞臺 옮김

金日成의 共産黨 造作

時期 區分	1950年代	1960年代	1970年代
共産青年 同盟	○ 1926年 共青 加入 ○ 1929年 共産 青年同盟 東滿 特別區秘書	○ 1926年 새날 朝 鮮同盟 組織 (撫松) ○ 1929年 백산青 年同盟代表로 活 動	○ 1926年 새날 朝鮮同盟과 打倒 帝國主義同盟 結成 ○ 1927年 여름 打倒 帝國主義同盟을 反 帝青年同盟으로 改稱
共 産 黨	○ 1931年 共産 黨 入黨	○ 共産黨 入黨內容 削除	○ 1930年 共産革 命組織 結成始作 (主體思想創始)
*評 價	* 中國共産黨 所 屬이었음을 間 接적으로 시사	* 中國共産黨員이었 다는 인상불식	* 獨自의인 共産主 義組織 結成을 과시

遊 擊 隊 捏 造

時 期	組 織 內 容	備 考
40 年代	東滿人民反日遊擊隊組織 → 東北抗日聯軍2軍6師長 (1931) (1936)	1946 年 資 料
50 年代	人民武裝遊擊隊組織 → 朝鮮人民革命軍組織 (1931) (1934)	1952 年 資 料
60 年代	抗日遊擊隊 組織 → 朝鮮人民革命軍 組織 (1932) (1934)	1961 年 資 料
70 年代	朝鮮革命軍組織 → 抗日遊擊隊創建 → 朝鮮人民革命 (1930) (1932) 軍으로 改稱 (1936)	1968 年 資 料
80 年代	抗日遊擊隊組織 → 朝鮮人民革命軍組織 (1930) (1932)	

金日成이 조직하여 反日鬪爭을 전개했다는 遊擊隊의 명칭도 구구각색으로 人民 遊擊隊, 人民武裝遊擊隊, 反日人民遊擊隊, 抗日 遊擊隊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革命軍이란 명칭도 人民革命軍, 朝鮮革命軍, 朝鮮人民革命軍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유격대와 혁명군의 組織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같은 組織인데 편의상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歷史的 事實을 날조하다 보니 복잡하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武裝活動 시기를 앞당기고 웅장한 「드라마」를 꾸미려는 創作的 상상력을 풍부히 구사하게 되자 점점 眞實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며 대담해져서 더욱 후안무치하게 捏造가 이뤄졌다.

現在는 遊擊根據地란 것이 있었는데, 이는 공개적인 解放地區 형태와 비공개적인 비밀근거지가 있었고, 혹은 완전근거지와 임시근거지도 있었는데 이런 地域에 人民革命 政府가 수립되었었다고 소설같은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 더구나 이런 政權機關의 性格에 대해서 그들은 “이 시기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인 만큼 해방지구 내의 정권은 소베트 정부가 아닌 노농동맹에 기초한 반일 애국 역량의 통일전선에 토대한 인민혁명정부”였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 놓고 있다. 또한 人民革命 政府란 것이 실시한 分野別 政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허위事實을 쓰고 있다.

소위 解放地區內的 人民革命政府政策

分 野	描 寫 內 容	備 考
政 治	○ 選舉權과 被選舉權 賦與 ○ 民主的 自由와 平等權 保障 (男女平等 등)	○ 金日成이 巡廻 演說

分 野	描 寫 內 容	備 考
軍 事	○ 兵器工場에서 연길폭탄과 각종 彈藥 武器 生産 ○ 軍政學習을 組織하여 遊擊戰術 研究	
經 濟	○ 親日地主의 土地를 沒收하여 農民들에 對 無償 分여하는 土地改革 實施 ○ 日本人과 매국노의 主要産業을 沒收하여 人民所有로 轉換	※ 4,800평을 나눠 주었더니 어떤 노인은 너무 기뻐 달밤에 나가 자기 땅을 만져 보았다.
社 會	○ 8時間勞動制, 無料義務教育制, 無償治療制 實施	
文 化	○ 出版活動이 활발하여 定期刊行物만 해도 500餘種 ○ 隨時로 藝術作品 公演	

北韓의 歷史冊이나 역사 사전에 나온 金日成에 관한 이 서술을 보면 1930年代에 그는 「대마륙구」전투 등과 같은 별의별 희한한 이름이 붙은 전투를 해야 할 수 없이 전개했고 「카룬회의」 등 이상한 명칭이 붙은 각종 회의도 수없이 많이 주관했다는 것이 장황하게 나온다.

北韓이 金日成의 행적을 날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가 1936年 5月 5日 소위 「祖國光復會」란 것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이것을 金日成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支部는 제주도 등 韓半島 全域과 滿洲의 각지에 있었으며 會員數도 수십만명이나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45年 10月 金日成이 소련 점령군의 지원하에 現 「로동당」의 모체인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조직했을 때의 당원 수는 5천명도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1935年 이후 대부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서 金日成을 따르던 수십만명의 祖國光復會 회원은 모두 어디 가고 겨우 기천명만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黨을 만들었는가?

金日成은 자신의 抗日鬪爭의 경력만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각종 출판물을 통해서 항일 무장 투쟁의 成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조작을 하고 있나를 알 수 있다. 즉 金日成의 휘하에는 천여명의 隊員이 있었는데 10'年간에 걸쳐 막강한 日本軍과 總 10만여회의 戰鬪를 하였는데 매 전투마다 한번도 敗한 일이 없이 모두 勝利만 하였다는 것이다. 金日成이 1931年부터 1940年까지 10만여회의 戰鬪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1'年에 1萬回の 戰鬪를 했다는 것이며 하루에는 27回的 戰鬪를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日本軍 6萬名을 殺傷하고 포로도 수만명에 이른다는 것

이며 노획한 武器도 수십만 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방 후, 金日成은 그 많은 日本軍 포로는 다 어떻게 했으며 그 많은 武器는 어디에 두었다는 것인가? 이러한 造作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작정한 捏造가 얼마나 非合理的이고 非科學的인가를 立證시켜 주고 있다.

4. 結 論

한 民族이 가장 사랑하고 그 民族에게 소중한 價値는 바로 자기 民族이 걸어온 자기의 歷史인 것이다. 民族이 왜 자기 歷史를 가장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歷史만이 뛰어나게 훌륭하고 歷史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民族이 자기 歷史를 찾을 때 가장 힘있게 現實을 살아 갈 수 있다는 절실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北韓은 과거의 우리 歷史를 있었던 그대로의 歷史가 아닌 事實과 완전히 상반되게 記述하면서 民族史를 단절시키고 民族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北韓이 國史를 歪曲, 捏造한 特性을 보면 金日成의 欺瞞的 성품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民族史를 허위로 재구성하고 자신의 1人獨裁, 父子世襲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허구의 革命傳統을 내세워 北韓 共產政權의 正統性을 造作하여 全韓半島의 共產化의 當爲性을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우리 民族의 原始史에서부터 現代史에 이르기까지 全

歷史를 허위로 꾸며 그런 歷史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自己催眠에 빠져 부단한 鬪爭과 革命의 意識을 갖도록 하고 金日成을 위해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때문에 北韓의 各級學校와 成人의 政治教育에서는 날조된 金日成 一家의 行적을 암송시켜 오도된 歷史觀을 전파시키고 있다. 모든 靑少年들에게는 金日成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게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1923年 1月 金日成이 11세때 소위 「조선의 것을 배우기」 위해 滿洲의 長白縣 八道溝에서 그의 고향인 萬景臺까지 걸어왔다고 조작한 「배움의 천리길」路程, 혹은 1925年 2月 소위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다시 萬景臺에서 만주의 八道溝까지 걸어서 갔다고 날조한 「광복의 천리길」을 제독시켜야 한다고 各級學校 學生들을 집단적으로 천리길 행군을 시키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革命傳統이란 것을 계승시킨다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란 구호하에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이란 것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날조된 혁명전통과 왜곡된 階級史觀으로부터 思想學習, 集團生活, 動員體制의 正當性을 찾고 있다. 모든 文學作品의 創作과 藝術活動도 허위 의식에 불과한 歷史觀에 따라 이뤄지며 우리 古典作品의 해석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적용이란 구실하에 階級性과 革命性만을 따져 도식적으로 評價하여 先祖들의 生活과 感情을 왜곡했다.

北韓에서는 階級史觀에 바탕을 두어 조작된 金日成 偶像化의

價値體系를 위반했을 때 가혹한 刑罰이 가해진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造作된 歷史觀을 무기로 文化的 鎖國主義를 실시하며 北韓에 사는 同胞를 文化的으로 單細胞 動物化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文化 風土에서 사는 民族은 文化的 畧을 영위할 수 없는 피동적 인간으로 퇴화할 우려가 있다.

民族史가 民族의 單一性を 확인해 주는 요소라면 民族史는 民族統一의 구심력이 될 수 밖에 없다. 北韓의 國史 왜곡과 날조는 각 분야에 걸친 異質化와 같이 南北간의 相應性を 멀리하여 民族統一에 큰 障礙를 주고 있다. 民族의 內面的 統一을 위해 北韓에서 진정한 民族史의 부활이 이뤄져야 한다. 날조된 革命傳統을 앞세워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노리는 金日成一黨은 反民族的, 反歷史的 集團으로 民族 正統性を 단절시키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北韓에서의 歷史 歪曲은 그 정리 작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歪曲과 造作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金日成 父子가 독단적 權力을 행사하고 있는 한 歷史歪曲과 날조의 계속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歪曲과 날조로 이뤄진 歷史觀이 얼마나 지탱 되겠는가? 나아가 造作된 歷史에 기반을 둔 1人 獨裁體制가 얼마나 지탱될 수 있겠는가? 허위의 歷史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體制는 필시 붕괴될 것이다. 虛構 위에 세워진 金日成 革命傳統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城에 불과하다.

民族의 歷史를 모독한 金日成은 반드시 歷史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統一의 전제조건으로 民族의 單一性을 확인해 주는 民族史의 계승이 어떤 意味를 갖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理解가 있어야 한다. 歷史意識을 논의하자면 우리 民族史에서 20세기 후반기를 解放 후의 分斷時代로 規定하고 출발해야 한다. 이같은 역사의식은 分斷體制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清算되어야 할 時代임을 인식하며 분단해소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文化水準을 월등히 높이면서 올바른 民族史觀을 정립하여 民族史的 正統性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歪曲된 史觀을 내세우는 北韓의 도전을 극복하고 民族統一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歷史歪曲

1984年 1月 25日 印刷

1984年 1月 31日 發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10 - 10/10